

추석가정예배서

예배알림 인도자

추석 명절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301장)..... 다 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가 족 대 표

성경봉독 누 가 복 음 17:11~19 가 족 이 함 께

-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
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 씀 ... 말 씀 모 든 것 이 당 연 한 것 이 아 니 라 은 혜 입 니 다 ... 인 도 자

1. 절망 속에서 만난 치유의 은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마을에 열 명의 나병환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광야로 쫓겨나야 했던, 사회적·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 있던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명하셨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길에 모두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2. 당연함을 넘어서 한 사람의 감사

열 명 모두가 치유의 기쁨을 누렸지만, 주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받은 은혜보다 자신의 갈 길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급급해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매일 숨 쉬는 공기, 건강, 곁에 있는 가족의 사랑을 내 권리이자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며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으며,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주신 전적인 선물입니다.

3. 영혼의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신앙의 고백

감사함으로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온 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에 그치지 않고,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온전한 복을 누렸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심리적 훈련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설령 올 한 해 우리 삶에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한가위를 맞아, 은혜를 잊어버린 아홉 명이 아니라 감사의 자리로 되돌아온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가족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리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 송 ... 사철에 봄 바람 불어 있고 (찬송 559장)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일가친척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 기도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